

## 노자가 예수를 만날 때

장 의 성(목사, 전남 고흥중앙교회)

일전에 도올 김용옥의 노자 강의가 장안의 화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 김용옥은 특유의 해박한 지식으로 21세기를 맞는 현대인에게 노자 열풍을 불러 일으켰다. 여기에 대해 주부 철학자 이경숙은 신랄한 독설을 김용옥 못지 않게 퍼부어 댔다. 천하의 독설가 김용옥이 한 주부에게 처참하게 난타(?)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실감하였다.

그런데 이경숙에 의하면 김용옥의 노자 해석은 완전히 엉터리라는 것이다. 김용옥 뿐만 아니라 노자 주석의 대가인 왕필 역시 엉터리 해석을 하였다고 역정을 내는데 본래 번역은 반역(半譯)이기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법이다. 무릇 번역에는 독자의 주관이 들어가지 않는 해석은 없다. 주석 자체가 자기 나름대로 독법(讀法)에 따라 번역한 주관적 해석일 따름이다. 그래서 필자도 문법적인 정확도에 얽매이지 않고 기존의 해석을 기초로 노자를 기독교의 성서적 관점에서 조망해 보려고 한다. 참고로 노자 해석의 텍스트는 인터넷 사이트 '돌아가자'(http://www.siul.pe.kr)에서 주로 인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그러면 노자 원문을 들여다보자. 대개 노자 도덕경을 본다면 1장부터 읽는데 거꾸로 읽는 것도 흥미롭다. 왜냐하면 1장에 나오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 이 문구는 너무나 유명하여 웬만한 사람들은 한번쯤 들어 본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어 “무명은 천지시요(無名, 天地之始) 유명은 만물지모라고(有名, 萬物之母)” 알 듯 말 듯한 문장이 나오는데 이들은(무명과 유명) 둘 다 현묘하여 현묘하고 현묘하다(同謂之玄, 玄之又玄)는 등 처음부터 철학적 취미가 없는 사람에게는 헛갈리는 글들이 시작된다. 거기다 6장쯤 오면 “도는 텅 빈 골짜기의 신과 같고 그 신은 결코 죽지 않으니(谷神不死) 이를 신비로운 암컷이라 부른다(是謂玄牝)” 라는 대목에 오면 더욱 헛갈려 그야말로 현묘하고 현묘한(玄之又玄) 소위 증묘지문(衆妙之門)에 들어서게 된다. 그러다 보니 이 현빈이 여성의 성기를 상징하느니 아니니 하는 엉뚱한 포르노 논쟁도 야기되는데 그럴 바에는 아예 뒷장부터 노자 도덕경을 읽는 것이 실제적이라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그러면 노자 맨 마지막 장인 81장을 보자. 81장은 “진실한 말은 아름답지 않다”란 부제가 달려 있는데 그 원문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진실한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에는 진실이 없다(信言不美, 美言不信)”. 한자의 매력은 사자성어(四字成語)에 있다. 모든 문장을 단 네 자로 압축하여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한문의 매력이다. “신언불미하고 미언불신이라”. 인간 언어의 오염을 이처럼 간략하게 표현하기도 쉽지 않다. 시편 기자는 일찍이 인간의 거짓된 혀를 이렇게 탄식하며 고발하였다.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시 5:9). 공자 역시 교언영색은 인에서 거리가 멀다고(巧言令色 鮮仁矣) 논어에서 갈파하였는데(학이 3장과 양화 17장) 노자는 이를 ‘미언불신’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래서 노자 철학의 매력은 한마디로 역설(paradox)과 풍자(irony)라고 볼 수 있는데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가치전도(價値顛到)의 파라독스 현상은

진실과 거짓이 뒤바뀐 죄악된 세계로 인한 필연적 결과이다. 노자는 계속해서 “많이 아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요 제대로 아는 것이 아는 것”이라고 하며 지식만능주의에 대해 경계한다.

이러한 반주지주의(anti-intellectualism)는 도덕경 곳곳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면 노자 20장이 대표적으로 노자는 절학무우(絶學無憂)를 부르짖는다. 또 71장에서는 “알고도 모르는 듯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모르면서 모두 아는 척 하는 것은 병이다(知, 不知, 上, 不知, 知, 病)”라고 하여 지식인의 허위의식을 고발하였다. 예수님 역시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허위의식에 대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경고하였다. 또 예수님은 소경을 고쳐 주시면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요 9:39). 노자는 또 56장에서 “지자불언, 언자부지(知者不言, 言者不知)”를 말하는데 이는 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지식인의 허위의식에 대한 고발이다.

노자 78장은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가 부제(副題)이다.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기는 대표적인 상징이 물이다. “세상에 물처럼 약하고 부드러운 것이 없다(天下莫柔弱於水) 그러면서도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기는 데 물보다 더 나은 것도 없다(而攻堅强者)”. 우리는 작년 물의 위력을 체험하였다. 태풍 루사가 몰고 온 물은 전국 곳곳을 쓸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다. 물은 약한 것 같지만 강하다. 그래서 “약한 것이 억센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弱之勝強, 柔之勝剛)”.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이를 실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天下莫不知, 莫能行)는 것이다.

이러한 물에 대한 예찬은 노자 사상의 핵심이다. 특히 노자 6장은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에게 혜택을 주지만 다투는 일이 없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위치한다(上善若水, 水善利萬物而不爭, 處衆人之所惡)”고 말하고 있다. 상선약수는 널리 알

려진 노자의 명언이다. 노자 43장 역시 물에 대한 예찬인데 “세상에서 제일 무르고 연한 물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단단한 쇠며 돌을 마음대로 다루고 자신의 일정한 모양을 갖지 않는 물은 틈이 없는 곳으로도 마음대로 스며든다(天下之至柔, 馳騁天下之至堅, 無有入無間)”고 하여 물에서 하늘의 도, 진리를 발견한다. 여기서 노자가 추구하는 덕목은 겸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자는 도덕경 전체에서 초지일관 겸손이야말로 하늘의 도가 지닌 덕목이라고 강조한다. 노자 도덕경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문장은 “(도는 만물을) 낳지만 소유하려 하지 않고(生而不有) 만들었지만 자랑하지 않는다(爲而不恃)”의 ‘생이불유 위이불시’이다(노자 2장, 10장, 51장 등등).

그런데 성경의 그리스도론이 노자 78장에 나온다면 끈이 믿어지겠는가? 그 원문은 다음과 같다. “나라의 옥됨을 떠맡는 사람은 나라의 주인이고(受國之垢是謂社稷主) 천하의 불행을 떠맡는 사람을 천하의 왕이라 했다(受國不祥是謂天下王)”. 천하의 왕이라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인데 그 천하 왕이 세상의 모든 불행을 도맡았다는 구절은 마치 이사야 53장을 보는 것 같지 않는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사 53:3). 그리하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사 53:5)라는 메시아가 당하는 고난은 노자 78장에서 그리스도 탄생 이미 오래 전에 암시되었던 것이다.

한편 노자 55장에는 메시아 왕국을 묘사한 이사야 11장을 연상시키는 대목이 나온다. 거기 보면 “덕을 두터이 품은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아(含德之厚, 比於赤子) 벌도 전갈도 뱀도 쏘거나 물지 않고(蜂虿虺蛇不螫) 맹수도 덤비지 않고 사나운 새도 덮치지 않는다(猛獸不據, 攫鳥不搏)”고 하는데 “젓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쫓 뎌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는 이사야 11장 8절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하다.

노자 77장은 “남는 것을 덜어 부족한 곳에 더한다”는 부제가 달려 있는데 이것은 노자의 교회론이다. 그 원문은 “남는 것은 덜어내고 부족한 곳에는 더해 준다(有餘者損之, 不足者補之)”로 성경의 고린도 후서 8장14절을 방불케 한다. “이제 너희의 유여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여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하늘의 도는 유여한 것을 덜어내어 부족한 곳에 더하여 주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교회의 헌금이 바로 하늘의 도를 실천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겸손인데 노자는 “하늘의 도를 행하고 나서 자랑하지 말고(爲而不恃) 공을 쌓았으면 머물지 말라고(功成而不處)”고 충고한다.

노자 76장은 “부드러움이 강함보다 위에 있다”가 부제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이다. “살아 있는 사람의 몸은 부드럽고 연약하지만(人之生也柔弱) 죽은 사람의 몸은 굳고 단단하다(其死也堅強). 그러므로 굳고 강한 것은 죽은 것이고 부드럽고 연약한 것은 산 것이다(故堅強者死之徒, 柔弱者生之徒)”. 이처럼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弱之勝強)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柔之勝剛)”는 노자의 가르침은 약한 자를 불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일치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고전 1:27).”라고 말씀하고 있다.

노자 75장은 백성이 배고프고 못 사는 것은(民之饑) 백성의 게으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많이 거두기 때문이라고(以其上食稅之多) 부패한 정치를 고발한다. 그리하여 노자 53장은 “조정은 깨끗한데(朝甚除) 농촌은 황폐하고(田甚蕪) 창고는 텅 비어 있으며(倉甚虛)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服文綵) 허리엔 날카로운 칼을 찾으며(帶利劍) 맛있는 음식을 싫도록 먹고(厭飲食) 재물은 남아돈다

(財貨有餘)”고 구약의 이사야나 아모스에 못지않은 날카로운 예언자적 사회 비판을 한다.

이러한 노자의 사회 비판은 그 대안으로 메시아적 정치를 희망하게 한다. 노자는 소국과민(小國寡民)이라는 이상향을 노자 80장에서 제시하면서 정치는 섬김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백성 위에 있기를 바라다면(是以欲上民) 반드시 겸손한 말로 자신을 낮추고(必以言下之) 백성의 앞에 서고자 한다면(欲先民) 반드시 몸을 남의 뒤에 두어야 한다(必以身後之)”는 노자 66장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마 20:26-27)”는 예수님의 말씀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그리하여 노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세 가지 보물이 있는데(노자 67장) 그것이 바로 소위 ‘노자 삼보’(老子 三寶)이다. “내게 세 가지 보물이 있어(我有三寶) 간직하여 소중히 여기니(持而保之), 그 첫째가 자비심이고(一曰慈), 둘째는 검약이고(二曰儉), 셋째는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는 것이다(三曰不敢爲天下先)”. 즉 노자에 있어 삼주덕(三主德)은 사랑과 검소와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랑은 약한 자에 대한 자비로 나타나며 검소는 소박하고 단순한 것을 추구하게 하고 겸손은 앞에서 나서기 보다 조용히 할 일을 하는데서 나타난다. 노자가 자주 말하는 ‘무위자연’이란 것은 요란하게 일함내 하기 보다 조용히 일하는 것 같지 않게 일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자비, 검소, 겸손이란 노자적 가치는 약육강식, 사치허영, 자기과시로 점철된 자본주의적 세계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도시 교회들은 예수님을 최고 경영자(C.E.O)로 묘사할 만큼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본주의적 가치에 너무 깊이 도취되어 있다. 교회가 메시아적 출애굽 공동체로써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복음서의 예수를 다시 만나야 하는데 그것은 노자를 통해 본 예수상의 부활이 될 수도 있다. 노자가 가르친 자비와 검소와 겸손이 예수의 가르침과 너무나 일치하기 때문이다.